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It's JEJU
제주마씸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697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2년 9월 14일 수요일(음력 8월 19일)

탐라해상풍력 100배 확장 허가 "고심중"

민간사업자, 최근 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 도에 제출
산업부·국무조정실 "신규 아닌 지구지정 변경 타당"
도 "주민 이익되는 공공모델과 민간부담 경감 고민"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이 추진하고 있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 처리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심하고 있다.

지구 지정 변경안이 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민간주도의 사업 추진이 이뤄진다. 기존 사업자인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이 확장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제주도의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기조가 흔들리게 된다.

13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은 제주시 한경면 두모·금등리 공유수면 일원 8만1062㎡(약 2만5000평)에 30MW발전 설비를 갖추고 2018년 1월부터 전력을 생산해 내고 있다. 해상에 3MW 급 풍력발전기 10기를 가동하고 있다.

탐라해상풍력발전(주)은 최근 이같은 발전 규모에 72MW(8MW·9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점용 면적이 100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 공유수면 면적은 3.6배 증가한다.

이같은 해상 점용면적 100배 확장 발전 사업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산업부와 국무조정실의 협의를 거친 결과 신규 사업이 아닌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경우 2015년 도내 육상 풍력 151MW·해상 풍력 702MW 지구 지정 개발 인·허가권을 위임받은 사업시행 예정자 지위를 갖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이 사라지게 된다. 즉 탐라해상풍력발전 확장 사업은 공공주도의 풍력개발이 아닌 민간주도의 사업이 되는 것이다.

이 확장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볼 경우 제주에너지공사의 주도로 풍력발전 지구 지정 및 인허가 절차 완료 후 경쟁에 의한 풍력발전 민간 사업자 선정이 가능해 공공주도의 해상풍력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최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을 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금은 발전기 10기를 설치해서 점용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데 일단 위치같은 것을 가안으로 했을 때 면적이 100배 늘어난다. 단순히 기존 절차안에서 이것을 신규로 풀어야 하느냐. 아니면 확장으로 풀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 뿐만이 아니라 현재 다른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적만으로만 봤을 때는 신규가 밟아야 되는 모든 절차를 다 밟아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를 이끄는 게 제주에너지공사가 되느냐, 탐라해상풍력발전이 되느냐 이 차이가 있다"면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공공의 모델을 담보하고 민간의 시간이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풍력전문가는 "제주에너지공사에게 5년간 권한을 위임했는데 제주도가 민간인 탐라해상풍력발전과 손을 잡고 지구 변경으로 가버리면 당초 풍력공공관리 계획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조례나 행정계획에 지구 변경에 대한 표준안 기준을 수립하고 나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지, 지금처럼 선 시행, 후 절차 마련은 민간영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특정한 사항외에는 행정과 사법에서도 소급적용을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비바람 몰아치는 해수욕장 제12호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13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코로나19 잠정집계 13일 <17시 기준> 신규 330 누적 32만9250

가파·마라·추자 주민 승선료 '1000원'

'제주도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후속 조치
추자 방문객 운임 지원 예산도 작년보다 갑절 증가

제주도가 관할하는 섬 주민들이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에 탈 경우 1000원의 운임만 내면 된다. 서귀포시 가파도·마라도에 이어 추자도 주민들도 운임 지원을 받아 1000원으로 제주 노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일은 지난 4월 제정된 '제주도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관할 섬 주민들에겐 여객선이 대중교통인 만큼 버스 요금에 준하는 비용으로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서귀포시가 앞서 가파도와 마라도 주민을 대상으로 종전 2000원(가파도)이나 2500원(마라도) 지불하던 운임을 이달부터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10월부터는 제주시에서 같은 내용으로 추자도 주민 지원에 나선다.

현재 1600명에 이르는 추자도 주민들은 제주 나들이 때 여객선에 따라 운임 일부를 지원 받아 5000원 또는 6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관련 조례 제정으로 다음 달부터는 여객선별 운임에 관계없이 추자도 주민들도 1000원만 내면 배편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제주항 여객선 터미널 사용료(1500원)의 5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추자도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누적 인원 3만8815명에게 총 5억2000만원의 운임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일반 관광객에게도 여객선 운임비 일부를 지원(본인 부담 40%)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추자도 방문객 증가에 맞춰 전년도 5억원보다 갑절 이상 늘어난 1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알 림

2022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공모전

공모기간 2022년 10월 23일(일)
공모대상 도내 초·중·고등학생
공모분야 NIE 학습활용 및 스크랩
(기사활용: 2022년 1월 1일자 신문부터 가능)
형 식 활동지(크기 자유) 10매 이상

시 상
▶개인 ▷대상 1명(상금 40만원) ▷금상 4명(각 20만원) ▷은상 6명(각 10만원) ▷동상 11명(각 5만원)
▶단체(팀) ▷대 상 1팀(상금 40만원) ▷최우수 9팀(각 15만원) ▷우 수 8팀(각 10만원)
▶지도자 및 지도교사상: 1명(상금 20만원)
※단체상은 일반 및 학교·기관부문 구분 응모. 단, 일반부문은 팀당 3명 이내 제한. 학교 등 기관은 학급 또는 동아리 가능. 부문별 출품작 수와 작품 수준에 따라 시상 내역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과 팀부문 이중지원은 안됩니다.

접수처 우편(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사 4층 편집국 NIE 공모전 담당자 앞) 또는 방문 접수
문 의 064-750-2235(NIE 담당자)

무한 자원으로 생각했던 제주의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개발사업·비닐하우스 증가 등 물 수요 급증으로 수자원 환경변화를 반영한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국 최초의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급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 물 공급 불균형과 물 부족을 해소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도민과 함께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사람에서 자연으로, 자연에서 사람으로, 물과 함께하는 세상!
제주형 통합 물관리로 미래세대에게 청정한 제주 지하수를 물려줍시다.
제주 지하수는 다음세대와 공유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